

"잡을 것도 없는데 키워서 잡는다고?"

[제주잠녀] 111. <2부>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82)제주시 신흥어촌계

등록 : 2008년 04월 28일 (월) 17:55:27
최종수정 : 2008년 04월 28일 (월) 17:55:27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기대를 하지 않고 찾아간 때문인가, 놀상 마주하던 바다지만 유난히 고운 물빛에 가슴이 트인다. 제법 짙어진 봄기운까지 스치는 봄바람에도 맘이 설렌다. 하지만 그 뿐이다. 계절만 봄일 뿐 바다는 아직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바닷물보다 마음이 더 시린 탓이다.



신흥리 오탑

"잡을 거나 있으면 다행이지"

신흥 어촌계 입구, '제발 키워 잡게 마심'이라는 포스터가 눈에 띈다. 바다 자원 관리를 위해 무분별한 포획을 스스로 자제하고 물질 시간도 줄이자는 내용이다.

잠녀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잡을 게 없는데 '키워서 잡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이다.

신흥 툫이나 천초, 소라 등 이른바 '신흥것'은 이름만으로도 알아줄 정도로 질이 좋다. 아니 좋았다. 지난해 물건을 보러왔던 수협 직원이 "좋은 건 어디 다 팔아두고 이것만 놔뒀냐"고 핀잔을 줬을 정도로 작황이 크게 떨어졌다.

하루가 멀다하고 바다발을 서성이던 잠녀들은 이제 마늘밭이며 감귤과수원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40대 중반 3명을 포함해 80대 초반까지 수시로 물에 드는 잠녀는 36명, 전체 어촌계원이 50명이 넘지만 남자는 단 1명, 어촌계 관리선을 운영하는 이뿐이다.

어촌계는 그 어느때보다 부산한 1년을 보내고 있다. 매달 해안 청소 일정이 잡혀있고, 툫은 3월 22일부터 시작해 물때에 맞춰 나출 정도 작업했다.

툫 작업을 하기 전에 소라작업을 시작하지만 올해는 하지 못했다. "물건이 없어서"다. 툫 작업이 끝나면 바로 천초작업이 5월까지 이어진다.

다음해 좋은 톳과 천초를 생산하기 위한 갯닻기 작업은 8~9월 이뤄진다. 금채기를 지내고 가을 바다를 마주했다 싶으면 이내 해가 넘어간다.

지난해 톳은 157포대(1포대 30kg 기준), 천초는 150포대(*) 수확했다. 노력은 했지만 상품가치가 많이 떨어진 탓인지 손에는 얼마 쥐지 못했다. 올해는 더 불안하다. 제대로 크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붉은 더께 같은 것이 붙어 자라면서 "그냥 버리게 됐다"고 하소연이다.

물의 들과 나감... 그리고

신흥리 바다는 전설같다. 알면 알수록 흥미롭고 또 그 숨겨진 매력에 빠지게 된다.

언젠가 한 외국인이 비행기에서 신흥리를 보고 마을 전체를 사겠다고 나섰을 정도다. 해안도로가 생기면서 이전의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U자형 바다의 아름다움은 여전하다.

U 자의 움푹 들어간 곳이 큰 개다. 큰 개 안에는 방사탑 3기가 있다. U자의 시작점과 끝점에 각각 1기의 방사탑이 세워져 있는 등 모두해서 5기의 방사탑이 있다.

물이 빠지면 물의 여느 방사탑과 같은 모습이지만 물이 들면 사정이 달라진다. 바닷물이 들어차 방사탑을 반쯤 삼키면 영락 없는 섬이다.



신흥리 U자형 큰 개.

사람들은 이곳을 '오탑'이라 불렀다. U자의 시작점에 있는 오다리탑(오래탑)과 큰 개 안에 있는 생이탑은 예전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손을 본지 얼마 안됐다.

2000년 이후 갯녹음 어장을 복원하고 인공어초를 투하하고 전복이며 오분자기 종패도 꽤 뿌렸다.

10만 마리나 뿌린 오분자기 종패는 처음 3년 성공한 듯 보였다. 해수온도가 변한 탓도 해보고 어장환경이 나빠진 탓도 해보지만 한번 고개를 돌린 바다는 쉽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듯 했다.

동바르와 세배, 관곶에 잠수 탈의장이 있다. 물이 빠지면 천초작업을 하는 오다리코지며, 장상여·넛섬여·혹십이여·소맹이집·구쟁이마루·강생이어멍여 등 잠녀들의 입을 타고 내려오는 이름들은 여전하다.

하지만 한때 전남 강진에서 용기를 실은 배가 오가기도 했던 신흥 큰 포구는 해안도로에 밀려 사라졌다. '신흥갯'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아쉬운 맘에 바다마저 눈에서 멀어진다.

'발로 밟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제주시 함덕어촌계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